

공립중등교사 임용경쟁률 9.3대 1

전북지역 360명 모집에 3139명 접수... 전년 대비 다소 하락

2020학년도 전북지역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9.3대 1을 기록했다.

3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접수 결과 335명 모집에 3,118명이 접수해 평균 9.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도 10.1대 1에 비해 다소 하락한 수준이다. 25명을 모집하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는 21명이 응시했다.

올해 가장 경쟁률이 높은 교과는 중국어로 집계됐다. 중국어는 5명 모집에 131명이 지원해 26.2대 1의 높

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국어 20명 모집에 420명이 응시해 21.0대 1을, 식물자원조경은 1명을 선발하는데 20명이 지원해 2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역사 9명 모집에 157명이 지원해 17.4대 1을, 영어 23명 모집에 368명이 지원해 16.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경쟁률이 가장 낮은 교과는 기술 교과로 8명을 선발하는데

21명이 지원해 2.6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제1차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3일 치러지며, 시험장소는 11월 15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1차 합격자는 오는 12월 31일, 최종합격자는 2020년 2월 7일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세계화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전북교육청, 도내 중학생 10명 선발 'NASA 글로벌캠프' 참여

전북지역 중학생 10명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 캠프에 나선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9박 11일 간의 일정으로 도내 중학생 10명이 '나사 글로벌 캠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선진과학기술과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세계화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현장 체험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을 높이고, 이공계 진로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NASA Huntsville Space Center 캠프 ▲미국 명문 대학 과학탐구 프로그램 참여 ▲문화 체험

및 박물관 탐방 등이다.

특히 우주인 훈련과정, 우주선 발사 미션, 무중력 상태 화학 및 생물실험 등 우주탐사의 발자취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콜롬비아 대학 Bio-medical 프로그램, 조지 메이슨 대학 NASA Research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미래 성장가능성을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의 과학연구단지 및 명문대 석학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귀국 후에는 발표회를 통해 체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박물관, 내일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조대연)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겨울 버섯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전북대 박물관 2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육상호 감독, 신하균·이광수 주연의 '나의 특별한 형제'가 상영된다. 배리어프리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지막화면 해설 영화다. 기존의 영화에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화면해설과 화자 및 대사, 음악, 소리정보를 알려주는 한글자막을 넣어 시청각 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조대연 전북대 박물관장은 "안대와 귀마개로 눈을 가리거나 귀를 막아 오로지 소리에만 집중하거나 자막에만 의지해 영화를 보는 경험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폭넓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교육을 진행했다.

전북대 창업지원단, 중장년 예비창업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큰 호응'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예비창업자(중장년)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2019년도 예비창업패키지(중장년) 지원 사업에 선정된 27개 팀(전북대 15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12팀)을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29일 남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업이 정산, 아이디어 보완 및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기술창업 실무분야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교육을 통해 창업 초석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멘토링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식품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이용수 대표는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사업타당성 분석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

문가 멘토링 및 창업기본실무에 관한 교육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우수한 창업기업의 다양한 아이템의 사업화 및 글로벌 집중 교육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R&D 및 지역 투자사업 등 연계 지원하여 성공 창업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창의통통, 우리들의 꿈과 끼를 펼쳐라'

김제동초, 동아리 한마당 성료

김제동초등학교(교장 강일순)는 30일 창의통통 동아리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들의 꿈과 끼를 펼쳐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학생들이 동아리 특성에 맞는 공연과 체험 부스를 스스로 기획해 진행했다.

1부 공연마당에서는 3~6학년 댄스부 학생들의 K-pop 댄스, 1~2학년 돌봄교실 학생들과 3~6학년 오카리나부 학생들이 들려주는 오카리나 연주,

중창단 학생들의 동요 공연, 연극부 학생들의 연극 공연이 펼쳐져 그동안 준비해온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학생들의 공연과 더불어 김제동초 학부모 사물놀이 동아리 회원들의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이 더해져 학생, 학부모가 함께 관람하는 공연마당이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다.

이날의 공연을 위해 3월 초부터 열심히 준비해온 학부모 사물놀이 동아리는 사단법인 전통문화예술진흥회가 주최, 주관하는 제5회 비교을 국악제 전국전통국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쾌거도 이뤘다.

2부 체험마당에서는 학생들이 페이퍼 크래프트, 김제동초 K-League, 나만의 초상화 만들기, 소프트웨어 체험 등 다양한 동아리 부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동아리를 소개하고 활동 방법을 알려 주는 등 동아리를 열심히 홍보했고 다른 학생들은 타 동아리를 체험해 봄으로써 내년엔 참여할 부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급 단위로 동아리에서 운영 중인 1, 2학년에서는 각각 독서 달력 꾸미기, 전래놀이 한마당을 실시했으며 학부모 동화연극 동아리가 준비한 인형

극 '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를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나오는 인형극을 보며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고 즐거웠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외에도 페브릭 파우치 만들기, AR 직업체험 등 다양한 상상 체험마당도 함께 운영됐다.

강일순 교장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오늘 학생인권 아카데미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인권관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학생인권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에서 유·초·중·고 교(원)장, 교(원)감, 교원과 교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학생인권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지난 5월부터 '학생 인권 현황과 과제', '죽음과 인권', '스포츠와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번 4회 아카데미는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조효재 교수가 '환경과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오는 11월 22일에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소울밴드 '뮤즈그레인'과 함께 하는 인권콘서트를 끝으로 학생인권 아카데미를 마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 감수성 함양을 통한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내년도 학생인권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김용현 교수, 한국농업기계학회 회장 당선

내년 1월부터 2년 임기... 농업기계학 발전 기대



전북대학교는 김용현 교수(농생대 생물산업기 계공학과)가 최근 열린 (사)한국농업기계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학회장에 당선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사)한국농업기계학회 회장을 맡게 된다.

(사)한국농업기계학회는 농업기계 및 바이오시스템공학 관련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 회원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사)한국생물학

경조절학회 학회장을 역임하면서 학회 발전을 이끌었던 김 교수는 농업기계학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김 교수는 왕성한 학술활동으로 150편의 논문을 국내외에서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2회, (사)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밖에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인명사전에 등재되고, 국제인명센터(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IBC)의 International Educator로 선정됐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시 GUNSAN CITY 축! 전주매일 창간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조산입니다.